

승리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진정한 안식일이란

신앙이라는 것은 영생의 영인 고로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죽인 승리자의 영이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체가 영생이고, 영생 자체가 생명과 일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아주 쉽게 쓰여 있지만 그 진의를 말해준 자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그대로 오늘날 구세주가 와서 그 성경의 진의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악과인 마귀의 영에게 점령당하여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가 되는 순간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씀했던 거죠? 마귀를 이겨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믿음이고, 부활함을 입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쏘아지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세가 안식일이요, 안식일이 곧 천국이요, 안식일이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 되는 날이라고 했죠? 그리고 안식일은 각자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이 천국이요, 승리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안식일이라고 하였고 말세는 이긴자 구세주가 이루게 되는데 마귀가 전멸되는 순간 사람이 전부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늘나라가 되고 안식일이 되고 말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세가 어느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의를 알아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각자 사람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 바

로 말세가 되면서 천국이 되면서 안식일이 되면서 승리자 하나님이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이 곧 생명과 일이고, 생명과 일이 곧 영생체인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말씀인 고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풀리는 것이지,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즉, 부활함을 입는다는 말씀도 역시 육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죽어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부활함을 입었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부활함을 입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승리자 하나님의 영이라야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고, 마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고로 승리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슬성신이고, 이슬성신이 이긴자 구세주의 분신체인 고로 구세주가 바로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말세에 와요, 몇 천 년 뒤에 오는 거예요? 말세에 오는 거죠? 말세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되면 인간 세상이 없어지는 고로 말세가 되고 말세가 곧 승리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인 고로 말세가 되면서 낙원이 되고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쉬는 날을 말하는 것인데 마귀를 전부 전멸시



구세주 조희성님

켜서 마귀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할 일이 없으니까 항상 쉬게 되는 고로 안식일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씀은 마귀들이 조악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을 씨줄 날줄로 쪼개서 마귀가 하나님의 신을 가둬놓고 있는 상태가 물질도 되고 사람도 되고 모든 동물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기를 형성하고 있는 고로 공기 자체가 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죠? 원소 속에 핵이 바로 중성자요, 중성자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전자가 뱅뱅뱅뱅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의 생명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자가 돌아간다는 것을 천당과학자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마이너스 전자가 중성자를 중심으로 뱅뱅 돌아가고 있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가둬 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가둬놓은 상태가 만물이신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만물 자체가 신인 고로 구세주가 나와서 갇혀 있는 하나님들을 전부 석방시킴으로 온 천하가 하나님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마귀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세계는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힘들고 아프고 죽는 것도 없는 세상인 고로 기쁨과 희열과 행복만이 존재하는 영생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사람 속에 있기는 있지만 현재는 마귀세상인 고로 사람들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긴자 구세주가 나와서 이 세상을 뒤집어엎고 천지

개벽을 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게 되어 있는 고로 하나님의 세계가 온 우주에 설립되는 거죠? 그리고로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로 사람이 하나님이 될 날이 점점 압박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된 다음부터는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때의 양식은 감춰던 만나인 감로이슬 성신인 고로 화장실이 없는 향기로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조건

그리고로 그 세계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또 고통 받는 것도 없으며, 힘든 것도 없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쾌락의 세계인 고로 행복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로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행복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죠? 그러한 행복의 세계를 구세주가 만드는 것이지, 보통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어 있는 고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격암유록에는 분명히 “노고산과 소래산 사이에서 삼신이 역할 한다.”는 말씀이 쓰여 있죠? 삼신이 역할 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 있는 밀실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서 연단을 받고 나와야 구세주지, 거기에서 연단 받지 않은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격암유록에 분명히 구세주의 성함이 쓰여 있는데 새41장에 ‘조미단풍구

비 조표풍지인 궁음심삼’이라고 그랬죠? “궁음심삼”이라고 했는데 심삼은 진인, 즉 정도령이요, 정도령이 생미복불이요, 생미복불이 구세주라고 격암유록에 쓰여 있죠? 그리고 생미복불이나 구세주나 정도령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 정도령, 생미복불이 내리는 감로가 바로 삼신산의 불로초라고 쓰여 있죠? 삼신산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동산을 말하는 것인데 삼신산은 바로 밀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신 아파트가 있다고 이 뒷산이 삼신산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짓 말이요, 밀실이 위치하고 있는 노고산이 삼신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중국의 진시황제가 남녀 500 쌍을 조선 땅에 보내서 삼신산을 찾으려고 해봤지만 찾았어요? 못 찾았죠? 삼신산을 찾아봤자, 그 당시에 불로초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생명나무 사이로 생명수가 흐른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영생할 사람들을 말한 것인 고로 이 승리에단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인지 몰랐죠?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은 구세주에게 백보좌와 하나님의 신이 좌정하시어 구세주 몸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 고로 그 생수가 승리에단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데 한국에 다 통한다고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거죠? 생수라는 건 하나님의 신인데 생수연결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입안에서부터 뱃속까지 흘러내려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기쁘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고로 생수연결이 됐던 사람이 생수연결이 끊어지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2001년 6월 18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0) 모세의 축복과 그의 임종



모세가 마지막으로 요단 서편 단 성읍을 보

모세는 그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단지파에 대해서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라고 아주 짧게 축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발람이 앞서서 단지파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 길게 축복하였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파를 축복하는데 계셨지만, 마귀의 화살을 받지 않도록 단지파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장하시어, 그가 단지파 이외의 다른 지파들까지 둘러리로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부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11지파만 축복하였습니다. 그의 축복은 제일 먼저 루벤지파부터 시작하여 유다지파, 레위지파, 베냐민지파, 요셉지파, 스불론지파, 잇사갈지파, 갓지파, 단지파, 납달리지파, 아셀지파의 순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시므온지파만 축복의 대상에서 빠뜨리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모압의 시딤에서 시므온지파에 속한 사람이 미디안의 유부녀를 강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서자 미디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칼날 앞에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¹

147세의 수한(壽限)을 누리 아람(이스라엘)이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듯이, 모세 또한 그가 120세로 임종하던 해까지 눈의 총기(聰氣)는 잃지 않았지만 시력은 약해져 앞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 40년 12월(아달월) 1일에, 모압평지의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 모세는 느

¹ 성경 기자들의 오류: 성경에는 그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에 의해서, ‘자비로운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날조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 기자가 마귀 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 종종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실례로 민수기 31장의 성경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알 우상에 절하고 정욕에 빠진 상태에서 모압 여자와 행음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무고하게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이 행한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난데없이 하나님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기에 그대로 복종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게 욕 돌리는 성경 기록기에 올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보산 즐기(또는 아비림 산맥)의 서쪽 끝에 봉긋이 솟아 있는 최고봉 비스가에 올랐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

10절: 이스라엘(아람)의 눈이 나이가 많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모세가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자,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열어 요단 동편에 속한 길르앗 온 땅을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가나안 최북단 요단 서편에 단(Dan; 원래 지명은 라이스까지 보여 주시고, 그 중간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과, 지중해까지의 유다 지파의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준 이 땅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호와와 종 모세는 여호와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를 모압 땅 벳보울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葬事)하셨는데,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던 자였습니다.*

《8장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부를 때에 쓰는 통칭입니다. 그가 에브라임의 후손이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와 구원이 시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지파의 각 사 람들이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렘만 “우리가 정탐한 땅은 기막히게 좋은 땅이요, 우리가 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짓고 팔이 흐르는 낙원과 같은 땅으로 주께서 인도해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고 의롭게 공박하였습니다. 그때 다른 정탐꾼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목격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렘과 같은 세대의 이스

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다 죽고 그들의 2세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렘만 그들의 2세들과 더불어 가나안으로 입성할 것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

2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 당시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요, 갈렘은 유다지파의 대표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자는 여호수아이며, 에브라임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요, 야곱의 본처 라헬의 손자입니다. 즉 야곱의 본처(라헬) 소생의 후손(여호수아)이 가나안 정복 당시 모세를 이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전개되는데, 그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지도자 삼손도 야곱의 본처(라헬)의 정자단의 후손입니다.